

#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과 원효의 금강삼매경에 나타난 언어관 비교 - 언어의 한계와 깨달음을 중심으로 -

학번 202612114  
성명 김 범 수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후기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과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에 나타난 언어관을 비교함으로써 언어의 한계와 깨달음의 관계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비트겐슈타인과 원효는 서로 다른 시대적·사상적 배경에 속해 있지만, 모두 언어를 절대적 진리의 재현 수단으로 보지 않고 인간을 속박하는 개념적 집착을 비판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접점을 지닌다.

비트겐슈타인은 전기 철학에서 말할 수 있는 것과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을 구분하며, 윤리·종교·삶의 의미와 같은 문제는 언어적 진술의 대상이 아니라 보여짐(showing)의 차원에 속한다고 보았다. 후기 철학에서는 언어게임과 규칙 따르기 논의를 통해 철학적 혼란이 언어의 오용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고, 철학을 "언어에 의해 우리의 지성이 매혹되는 것에 대한 투쟁"으로 규정하였다.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에서 "초심행처 과언어도(超心行處, 過言語道)"라 하여 궁극적 실상이 언어와 분별을 초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생과 멸, 유와 무, 능취와 소취의 이원적 분별을 해체하고, 일심(一心)의 관점에서 모든 대립을 회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언어는 진리를 고정적으로 재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중생의 집착을 제거하기 위한 방편적 도구로 기능한다.

본 연구는 비트겐슈타인의 사적 언어 비판이 의미의 사적 근거를 해체하는 언어철학적 논의인 반면, 원효의 능취·소취 해체는 인식 주체와 대상의 이원성을 극복하여 일심의 차원을 드러내려는 수행론적 논의임을 밝힌다. 그럼에도 양자는 모두 독립적이고 고정된 실체를 전제하는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언어와 개념에 대한 집착을 해소함으로써 인간의 해방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철학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비트겐슈타인, 원효, 『금강삼매경론』, 언어게임, 사적 언어 논증, 일심, 능취·소취, 화쟁, 언어의 한계, 깨달음

## 1. 들어가는 말

인간은 언어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진리를 탐구한다. 그러나 언어가 과연 세계와 진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철학과 종교 전통에서 중요한 논쟁이 이어져 왔다. 언어는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인 동시에 진리를 왜곡하거나 은폐할 수 있는 매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언어의 가능성과 한계, 그리고 언어를 넘어서는 인식의 가능성은 동서양 사상사에서 지속적으로 탐구되어 온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언어는 세계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가? 언어는 진리를 전달하는 수단인가, 아니면 진리를 가리는 장애 요소인가? 철학적 혼란과 종교적 집착은 언어의 오용으로부터 발생하는가? 그리고 인간은 언어의 한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극복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한 방편으로 비트겐슈타인(Ludwig Wittgenstein)의 언어철학과 원효(元曉)의 『금강삼매경론, 金剛三昧經論』에 나타난 언어관을 비교하고자 한다.

비트겐슈타인과 원효는 서로 다른 시대와 문화적 배경 속에서 활동하였으며, 각각 서양 분석철학과 동아시아 불교사상을 대표하는 사상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언어의 절대성을 경계하고 언어가 만들어내는 개념적 집착을 비판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비교 가능성을 제공한다. 특히 두 사상가는 모두 인간이 언어를 실재 그 자체로 오인할 때 철학적(비트겐슈타인), 종교적(원효)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았으며, 언어의 한계를 자각하는 것이 보다 깊은 이해와 깨달음에 이르는 계기가 된다고 보았다.

비트겐슈타인은 전기 철학 저서인 『논리철학논고』에서 언어를 세계의 논리적 그림(Bild)으로 이해하면서도, 언어로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 사이의 경계를 설정하였다. 그는 언어가 세계의 사실을 기술할 수는 있지만, 가치나 윤리, 삶의 궁극적 의미와 같은 문제는 언어로 완전히 표현될 수 없다고 보았다.<sup>1)</sup> 후기 철학 저서인 『철학적 탐구』에서는 그는 전기의 그림이론을 재검토하면서, 언어의 의미가 사용 속에서 형성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른바 ‘언어게임(language game)’ 개념을 통해 의미를 고정된 본질이 아니라 삶의 형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적 활동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철학의 역할은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의해 발생한 혼란을 해소하는 치료적 작업이 된다. 그는 “철학은 우리의 지성이 언어에 의해 매혹되는 것에 대한 투쟁”이라고 말하면서 철학적 문제의 상당 부분이 언어의 오용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sup>2)</sup>

1)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논고』, 이영철 옮김(서울: 책세상, 2020), 4.03, 5.6, 6.4~7.

2)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이영철 옮김(서울: 책세상, 2020), §§7, 19, 23, 109, 116, 133, 241.

반면 원효는 『금강삼매경론』에서 궁극적 진리인 일심(一心)이 언어와 개념의 분별을 초월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궁극적 경지가 마음의 작용과 언어의 길을 넘어선다고 하였으며, 대상에 대한 집착과 그것을 분별하는 주체적 집착을 함께 떠날 것을 강조하였다.<sup>3)</sup> 그러나 원효에게 언어는 궁극적 진리를 직접 드러낼 수 없는 한계를 지니지만, 중생을 깨달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방편이기도 하다. 따라서 문제는 언어 자체가 아니라 언어를 실재화하는 집착에 있다. 따라서 『금강삼매경론』은 언어와 분별에 대한 집착을 해체함으로써 일심의 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수행론적·해탈론적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sup>4)</sup>

이처럼 비트겐슈타인과 원효는 모두 언어의 한계를 강조하면서도 언어 자체를 폐기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보인다.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이 언어의 오용에서 발생하는 철학적 혼란의 해소에 관심을 두었다면, 원효는 언어와 분별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는 깨달음의 실현에 관심을 두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정리하면, 전자는 철학적 명료화(philosophical clarification)를, 후자는 수행적 전환(soteriological transformation)을 지향한다.

지금까지 비트겐슈타인과 불교의 언어관을 비교한 연구는 선불교나 중관사상을 중심으로 일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을 중심으로 비트겐슈타인의 전기·후기 언어철학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한 연구는 필자가 검토한 범위 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언어의 한계와 이를 넘어서는 깨달음 또는 철학적 명료화의 가능성을 중심으로 양자의 사유 구조를 비교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비트겐슈타인의 전기·후기 언어철학과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에 나타난 언어관을 비교함으로써, 양자가 언어의 한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철학적 명료화와 불교적 깨달음의 구조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갖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동서양 사상에 나타난 언어 비판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언어를 실체화하지 않으면서도 진리 탐구의 매개로 활용하려는 사유의 가능성을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비교철학적 관점에서 언어와 깨달음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는 하나의 해석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원효, 「금강삼매경론」 권상, 『한국불교전서』 1, 604a. T34, no. 1730, 968c.  
遠離所取差別之相, 解脫能取分別之執, 遍三世際無所不等, 等虛空界無所不遍, 不墮有無一異等邊, 超心行處, 過言語道。(궁극적 경지가 마음의 작용과 언어의 길을 넘어선다고 하였으며, 대상에 대한 집착과 그것을 분별하는 주체적 집착을 함께 떠날 것을 강조한다.)

4) 고영섭, 「분향 원효 『금강삼매경론』의 주요 내용과 특징」, 『불교철학』 7, 2020. pp.119-185.

## 2.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

### 2.1 전기 『논리철학논고』: 그림이론과 언어의 한계

비트겐슈타인의 전기 철학은 『논리철학논고』(Tractatus Logico-Philosophicus)에 집약되어 있다. 이 저작에서 그는 언어와 세계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철학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세계는 사물들의 총체가 아니라 사실(Tatsache)의 총체이며, 언어는 이러한 사실을 표현하는 수단이다. 따라서 언어의 구조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곧 세계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된다.<sup>5)</sup>

『논리철학논고』의 핵심 주장은 이른바 "그림 이론(Bildtheorie)"으로 알려져 있다. 비트겐슈타인은 명제(Satz)가 세계의 사실을 그림처럼 묘사한다고 보았다. 그림이 대상들 사이의 관계를 일정한 형식 속에서 나타내듯이, 언어도 논리적 형식을 통하여 세계의 사실을 표현한다. 예를 들어 "책이 탁자 위에 있다"라는 명제는 책과 탁자 사이의 관계를 언어적으로 배열함으로써 실제 세계의 한 상태를 나타낸다. 이때 명제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명제의 논리적 구조와 세계의 사실 구조 사이에 대응 관계가 성립해야 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그림과 세계가 동일한 논리적 형식(logische Form)을 공유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림이 대상을 묘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림과 대상이 일정한 구조적 대응성을 가지기 때문이며, 언어 역시 세계와 동일한 논리적 형식을 공유하기 때문에 세계를 기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의미 있는 명제란 세계의 가능한 상태를 참 또는 거짓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명제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연과학의 명제들은 의미 있는 진술이 되며, 논리학은 그러한 명제들의 형식을 밝혀주는 역할을 수행한다.<sup>6)</sup>

그러나 비트겐슈타인은 동시에 언어의 가능성을 논하는 작업이 곧 언어의 한계를 규정하는 작업이라고 보았다.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의 세계에 한정된다. 다시 말해, 명제의 형식으로 기술 가능한 것만이 "말해질 수 있는 것(das Sagbare)"이다. 반면 윤리, 미학, 종교, 삶의 의미와 같은 문제들은 사실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세계 안의 하나의 사실처럼 기술될 수 없기 때문에 논리적 명제로 표현될 수 없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윤리나 종교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다만 그것은 언어로 진술될 수 있는 종류의 대상이 아니다. 그는 『논리철학논고』에서 "세계의 의미는 세계 밖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삶의 가치나 궁극적 의미는 사실들의 총체인 세계 내부에서 발견될 수 없으며, 따라서 과학적 언어로 설명될 수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은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영역과 인

5)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논고』, 이영철 옮김(서울: 책세상, 2020), 1.1, 2.1511, 2.18, 4.01, 4.112, 4.12.

6)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논고』, 이영철 옮김 (서울: 책세상, 2020), 4.021, 4.024, 4.06, 4.11, 6.124.

간 존재의 궁극적 문제를 구분하였다.<sup>7)</sup>

이러한 논의는 『논리철학논고』의 마지막 명제인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Wovon man nicht sprechen kann, darüber muss man schweigen)"에서 절정에 이른다.<sup>8)</sup> 이 명제에서 비트겐슈타인이 말하고자 한 것은 윤리나 종교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언어적 진술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침묵은 무지의 표현이 아니라 언어의 한계를 자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명제가 세계를 묘사할 수 있게 하는 논리적 형식 자체는 다시 하나의 명제로 표현될 수 없다. 논리적 형식은 언어의 사용 속에서 드러날 뿐이며, 이러한 점에서 그는 '말해질 수 있는 것(sagen)'과 '보여질 수 있는 것(zeigen)'을 구분하였다. 논리적 형식 자체는 언어로 말해질 수 없지만 언어의 사용 속에서 보여진다. 마찬가지로 윤리적 가치나 종교적 의미 역시 명제적으로 서술될 수는 없지만 인간의 삶 속에서 드러난다. 즉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를 통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삶과 경험 속에서 보여지는 것이다.<sup>9)</sup> 이러한 관점은 훗날 그의 후기 철학뿐 아니라 종교철학과 신비주의 해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언어의 한계를 통해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차원이다. 『논리철학논고』는 언어의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는 작업처럼 보이지만, 그 궁극적 목적은 언어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을 드러내는 데 있다. 그는 자신의 명제들마저도 일종의 사다리라고 말한다. 독자는 이 사다리를 통해 올라간 뒤에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sup>10)</sup> 다시 말해 철학은 새로운 형이상학적 이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세계를 올바르게 보도록 돕는 작업이다.

이러한 점에서 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은 단순한 언어이론이 아니라 인간 인식의 한계를 성찰하는 철학적 기획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언어는 세계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궁극적 가치와 의미를 완전히 포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철학의 과제는 언어의 경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는 데 있으며, 이러한 구별을 통해 인간은 비로소 언어가 미치지 못하는 차원을 자각하게 된다.

## 2.2 후기 비트겐슈타인: 언어게임과 철학의 치료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적 탐구』에서 전기의 그림이론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언어의 의미를 세계와의 대응 관계가 아니라 실제 사용 속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는 언어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행되는 다양한 활동, 즉 '언어게임

7)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논고』, 이영철 옮김 (서울: 책세상, 2020), 6.41, 6.42, 6.52, 7.

8) 같은 책, 7

9) 비트겐슈타인에게 윤리와 삶의 의미는 명제적으로 진술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실천 속에서 드러나는(show themselves) 차원에 속한다. 이러한 해석은 해커(Hacker 1986), 다이아몬드(Diamond 1991), 코넨트(Conant 2000) 등에 의해 발전되었다.

10) 같은 책, 6.54

(language-game)’으로 이해하였다. 언어의 의미는 어떤 대상과 일대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양식(forms of life) 속에서 사용되는 방식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의미는 사용이다(meaning is use)”라는 명제에서 보듯이 비트겐슈타인은 많은 경우 단어의 의미를 그 언어 속에서의 사용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sup>11)</sup>

이러한 관점에서 철학적 문제들은 세계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탐구라기보다 언어를 잘못 사용하거나 언어의 문법을 오해함으로써 생겨나는 혼란으로 이해된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의 임무를 새로운 이론이나 형이상학적 체계를 제시하는 데 두지 않고, 언어의 실제 사용을 면밀히 살펴 철학적 혼란을 해소하는 데 두었다. 그래서 그는 철학을 “언어에 의해 우리의 지성이 매혹되는 것에 대한 투쟁”이라고 규정하며, 철학적 활동을 일종의 ‘치료(therapy)’로 이해하였다.<sup>12)</sup>

이러한 입장은 사적언어(private language) 비판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비트겐슈타인은 오직 한 개인만이 이해할 수 있고 타인은 원리상 이해할 수 없는 언어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비판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자신의 내적 감각을 가리키기 위해 ‘S’라는 기호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기호는 의미를 가질 수 없다. 언어는 본질적으로 규칙을 따르는 활동인데, 규칙의 올바른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적 기준(public criterion)이 없다면 규칙 자체가 성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미는 순전히 개인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실천과 공동체적 규칙 속에서 형성된다. 사적언어 비판은 규칙 따르기에 대한 논의로 이어진다. 비트겐슈타인에 따르면 규칙을 따르는 이유를 계속해서 요구하다 보면 더 이상의 정당화가 불가능한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때 규칙의 적용은 초월적 근거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활양식 속에서 유지된다. 이러한 점에서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은 모든 의미 체계의 궁극적 토대를 찾으려는 철학적 시도에 비판적이다. 어떤 규칙을 따르는 이유를 계속 묻다 보면 결국 더 이상 정당화를 요구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한다. 『철학적 탐구』에서 그는 “설명이 끝나는 곳에서 우리는 행동한다”고 말한다. 즉 규칙을 따르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어떤 절대적 토대나 형이상학적 근거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생활양식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sup>13)</sup>

이러한 무근거성은 회의주의나 상대주의를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언어와 의미의 기반이 초월적 원리나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제 삶과 실천에 있다는 사

---

11)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이영철 옮김 (서울: 책세상, 2020), §23, 43.

12) 같은책, §109

13) 같은책, §138-242.

Ludwig Wittgenstein,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217; Henry LeRoy Finch, *Wittgenstein: The Later Philosophy* (Atlantic Highlands, NJ: Humanities Press, 1977), pp.95-99.

실을 보여준다. 언어는 어떤 궁극적 토대 위에 세워진 체계가 아니라, 이미 작동하고 있는 생활세계 속에서 의미를 획득한다. 따라서 철학의 과제는 언어의 숨겨진 본질이나 최종 근거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언어를 사용하는 방식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데 있다.

결국 후기 비트겐슈타인에게 언어는 세계를 반영하는 논리적 구조가 아니라 공동체적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실천적 활동이며, 의미는 언어게임 속에서 형성된다. 또한 사적언어는 성립할 수 없으며, 모든 언어는 공적 규칙과 생활양식에 의존한다. 나아가 언어와 규칙은 어떠한 절대적 근거 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천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언어의 본질을 탐구하는 형이상학이 아니라 언어에 대한 집착과 철학적 혼란을 해소하는 치료적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적 혼란의 원인을 언어의 오용과 규칙에 대한 오해에서 찾았다면, 원효는 언어와 개념에 대한 집착이 분별과 대립을 낳는다고 보았다. 양자는 모두 언어 자체보다 언어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문제 삼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비교 가능성을 제공한다.

### **3. 원효의 언어관: 분별 해체와 방편으로서의 언어**

원효의 언어 사용을 ‘치료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적 치료와 동일한 의미라기보다, 언어와 개념에 대한 집착을 해체하여 수행적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는 의미에서이다.

#### **3.1 분별과 언어 집착의 문제**

원효에게 언어의 문제는 언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에 대한 집착에 있다. 인간은 언어와 개념을 통해 세계를 이해하지만, 동시에 그 언어적 구분을 실제적인 것으로 오인함으로써 다양한 분별과 대립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분별은 본래 하나인 실상을 드러내기보다 오히려 가리고 왜곡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원효가 비판하는 대상은 언어 그 자체가 아니라 언어를 실체화하여 집착하는 인식 태도이다.

『금강삼매경론』에서 원효는 “집착되는 차별상(差別相)을 떠나고, 또한 집착하는 분별도 떠난다.(離所執差別相 亦離能執分別)”는 언급을 한다. 여기서 원효는 단순히 대상에 대한 집착만을 문제 삼지 않는다. 외부 대상에 대한 집착(所執)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 대상을 분별하는 주체적 의식(能執)에 대한 집착까지 함께 해체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불교 인식론에서 말하는 능취(能取)와 소취(所取)의 이원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능취란 대상을 파악하는 주체적 의식 작

용을 말하고, 소취란 그 의식에 의해 파악된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을 말한다. 원효는 이 둘이 독립적으로 실재한다고 보는 이원적 인식 구조 자체를 해체하고자 한다. 우리가 ‘있다’와 ‘없다’, ‘생긴다’와 ‘사라진다’, ‘나’와 ‘타인’이라는 언어적 구분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일 때, 실상은 은폐되고 분별만 강화된다.

원효는 이러한 분별이 궁극적으로 무명(無明)에 근거한다고 본다. 언어는 본래 방편적 기능을 지닌 것이지만, 중생은 언어가 지시하는 개념을 실재로 착각한다. 따라서 문제는 언어가 아니라 언어에 대한 집착이며, 수행의 목표는 언어의 폐기가 아니라 언어에 대한 집착의 제거이다. 이 점에서 원효의 언어 비판은 언어 자체를 부정하는 반언어주의가 아니라 언어 집착에 대한 치료적 비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sup>14)</sup>

### 3.2 일심과 방편으로서의 언어

원효의 언어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핵심 개념인 일심(一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승기신론』의 영향을 계승한 원효는 일심을 진여문(眞如門)과 생멸문(生滅門)을 포괄하는 궁극적 실재로 이해한다. 일심은 모든 분별과 대립이 성립하기 이전의 근원적 차원을 가리키지만, 그것 역시 하나의 고정된 실체로 파악되어서는 안 된다. 『금강삼매경론』은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마음의 작용이 미치는 곳을 넘어가며 언어의 길을 초월한다.(超心行處, 過言語道)” 여기서 ‘심행처(心行處)’란 분별적 사유가 작동하는 영역을 의미하며, ‘언어도(言語道)’는 언어가 도달할 수 있는 범위를 가리킨다. 궁극적 진리는 분별적 사유와 언어적 규정을 초월하기 때문에 어떠한 개념으로도 완전히 포착될 수 없다.<sup>15)</sup>

그러나 원효는 언어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언어의 가치를 부정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생은 언어를 통해서만 교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는 궁극적 실재를 직접 재현할 수는 없지만, 분별과 집착을 제거하는 방편으로는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원효는 무상법품(無上法品)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생(無生)의 마음을 말하는 것은 무화(無化)에 있으며, 다만 마음과 경계를 가설적으로 설정하여 설명하기 때문에, 부득이 언어에 의탁하여 그렇게 말할 뿐이다.(言無生之心 在於無化 假說心境故 寄言在然)”<sup>16)</sup>

이 구절은 원효의 언어관을 매우 잘 보여준다. 궁극적으로는 마음도 경계도 실체가 없지만,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는 임시적으로 마음과 경계를 설정하여 설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언어는 진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라 집착을 제거하기 위

14) 박태원, 「원효의 화쟁사상 연구」, 『한국불교학』, 2014, pp.383-404.

15) Robert E. Buswell Jr., *Cultivating Original Enlightenment*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9), pp.34-45.

16) 원효, 「금강삼매경론」 권상, 『한국불교전서』 1, 620c.. T34, no. 1730, 965c 11-12.

如是始得無生之心，會本空寂無化之理，故言無生之心在於無化。假說心境，故寄言在然。然始離能取，始覺義；本離空心，是本覺義

한 교육적 도구이다. 이러한 점에서 원효의 언어 사용은 역설적 구조를 가진다. 그는 언어를 사용하여 언어의 한계를 드러내고, 개념을 사용하여 개념에 대한 집착을 해체하려 한다. 언어는 진리를 소유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언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게 만드는 치료적 장치인 것이다.

### 3.3 화쟁과 언어적 집착의 해체

원효의 화쟁(和諍) 사상 역시 이러한 치료적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화쟁은 서로 다른 교설을 조화시키는 이론으로 설명되지만, 그 목적은 단순한 교리적 절충에 있지 않다. 원효가 해결하고자 한 것은 특정 교설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과 대립이었다. 원효 당시 동아시아 불교계에는 공관과 유관, 진여와 생멸, 중관과 유식 등 다양한 교학적 입장이 병존하고 있었다<sup>17)</sup>. 각 학파는 자신의 교설을 중심으로 교리적 우열을 논하며 상호 대립하는 경향을 보였고, 원효는 이러한 분파적 논쟁을 극복하기 위해 화쟁(和諍)의 논리를 전개하였다.<sup>18)</sup> 원효는 이러한 논쟁의 근본 원인이 언어와 개념에 대한 집착에 있다고 보았다. 『금강삼매경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공간적 위치가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으며, 시간성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有方無方 皆不可得 有時無時 並不可得)”<sup>19)</sup> 이는 어느 한 개념적 입장을 절대화하는 것이 실상에 대한 집착일 뿐임을 보여준다. 유(有)를 집착해도 오류이며 무(無)를 집착해도 오류이다. 따라서 화쟁은 서로 다른 교설을 단순히 타협시키는 작업이 아니라 각각의 입장이 가진 집착을 해체하여 보다 넓은 관점으로 나아가게 하는 과정이다.

또한 원효는 일심의 입장에서 모든 교설을 재해석한다. “다만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只是一心)”<sup>20)</sup> 이 한마디는 원효 사상의 핵심을 함축한다. 여러 교설은 서로 배타적인 절대 명제가 아니라, 일심의 관점에서 중생을 인도하기 위한 다양한 방편으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화쟁은 여러 언어와 개념을 일심이라는 궁극적 차원에서 재해석함으로써 분쟁을 해소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화쟁은 단순한 교리 통합이 아니라 언어적 집착을 치유하는 실천적 작업이며, 수행론적 의미를 가진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효에게 언어는 궁극적 진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수단이 아니다. 진리는 본질적으로 언어와 개념을 초월하며, 따라서 언어는 진리를 완전하게 재현할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언어를 폐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언어는 중생의 분별과 집착을 드러내고, 그것을 해소하도록 이끄는 방편으로 사용될 수 있다. 원효는 「無上法品」에서 반복적으로 생과 멸, 유와 무, 능취와 소취의 대립을 해체하며, 궁극적으로는 일심의 관점에서 모든 분별을 초월하도록 인도한다. 이러한 과정에

17) 고영섭, 「분향 원효 『금강삼매경론』의 주요 내용과 특징」, pp.160-170.

18) 남동신, 『원효의 발견』(서울: 휴머니스트, 2022), pp.291-299.

19) 원효, 『금강삼매경론』 권3, 「무상법품」, 『한국불교전서』 1, 644c. T34, no. 1730, 1003b

20) 같은책, 644c.

서 언어는 진리를 소유하게 만드는 수단이 아니라 집착을 제거하는 치료적 도구로 기능한다.<sup>21)</sup> 다시 말해 원효는 언어를 사용하여 언어에 대한 집착을 해체하고, 개념을 사용하여 개념을 넘어가도록 만든다.

이러한 점에서 원효의 언어관은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철학과 중요한 접점을 형성한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철학은 언어의 오용으로부터 발생한 혼란을 치료하는 활동이며, 원효에게 수행과 교설은 분별과 집착을 해소하는 방편이다. 양자는 모두 새로운 형이상학적 이론을 구축하려 하기보다 인간을 속박하는 잘못된 집착을 제거함으로써 자유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공통의 치료적 성격을 가진다. 결국 비트겐슈타인이 언어게임의 분석을 통해 철학적 혼란을 치유하고자 했다면, 원효는 일심과 화쟁의 관점에서 언어적 집착과 분별을 해체함으로써 해탈의 길을 제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트겐슈타인의 치료가 철학적 명료화에 머무른다면, 원효의 치료는 분별의 해체를 통해 해탈과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론적 전환을 지향한다.

#### 4. 비트겐슈타인과 원효의 비교: 언어의 한계와 치료적 기능

##### 4.1 공통점: 언어의 한계와 집착의 해체

비트겐슈타인과 원효는 시대와 문화적 배경이 크게 다르지만, 언어에 대한 근본적인 통찰에서 중요한 공통점을 보여준다. 두 사상가는 모두 언어를 인간 이해의 필수적 수단으로 인정하면서도, 언어를 절대화하는 태도를 경계하였다. 언어는 세계와 진리를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동시에 인간을 혼란과 집착에 빠뜨리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논고』의 마지막 명제에서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Wovon man nicht sprechen kann, darüber muss man schweigen)"고 말하였다. 이는 언어의 무용성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언어가 표현할 수 있는 영역과 표현할 수 없는 영역을 구분하려는 시도였다. 윤리, 종교, 삶의 의미와 같은 문제는 언어적 진술의 대상이 아니라 보여지는(showing) 차원에 속한다.<sup>22)</sup> 후기 비트겐슈타인 역시 언어게임 이론을 통해 철학적 혼란이 언어의 오용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sup>23)</sup>

원효 역시 언어가 궁극적 진리를 완전히 담아낼 수 없다고 보았다. 『금강삼매경론』

21) 고영섭, 『분향 원효의 생애와 사상』 (서울: 조계종출판사, 2016), pp.114-119.

22) Peter M. S. Hacker, *Insight and Illusion: Themes in the Philosophy of Wittgenstein*, rev.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pp.79-102.

23) Peter M. S. Hacker, *Wittgenstein: Meaning and Mind*, 2nd ed. (Oxford: Wiley-Blackwell, 1993), pp.265-310.

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음의 작용이 미치는 곳을 넘어가며 언어의 길을 초월한다.(超心行處, 過言語道)” 궁극적 실상은 언어와 사유를 초월하므로 언어는 진리를 완전하게 재현할 수 없다.<sup>24)</sup> 그러나 원효는 언어를 폐기하지 않는다. 오히려 언어를 통해 언어에 대한 집착을 제거하려고 한다.

또한 두 사상가는 모두 인간의 문제를 특정한 형태의 집착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문제들은 실제로 해결되어야 할 형이상학적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문법을 오해함으로써 발생한 의사문제 (擬似問題, pseudo -problem)이다.<sup>25)</sup>

원효에게 문제는 언어 자체가 아니라 언어와 개념을 실체화하는 분별심에 있다. 인간은 언어적 구분을 실제 자체로 오인함으로써 다양한 대립과 집착을 형성하게 되며, 이러한 분별은 궁극적 실상을 가리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원효는 언어를 폐기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언어에 대한 집착을 해체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해한다.

결국 양자 모두 인간을 속박하는 것은 세계 자체가 아니라 세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언어적·개념적 집착이라고 보았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철학적 혼란은 언어의 문법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하며, 원효에게 분별과 갈등은 언어와 개념의 실체화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언어의 한계를 자각하고 언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철학적 명료화와 수행적 전환의 출발점이 된다.

다만 이러한 공통된 문제의식이 곧 동일한 해결 방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의미가 형성되는 공적 규칙과 언어게임의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철학적 혼란을 해소하고자 하였으며, 원효는 능취와 소취의 이원적 분별을 해체함으로써 일심의 관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사적언어 비판과 능취·소취 해체를 비교하는 다음 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4.2 언어적 실체화의 비판: 사적언어와 능취·소취

앞 절에서 살펴본 언어의 한계와 집착 해체라는 공통 문제의식은 사적언어 비판과 능취·소취 해체의 논의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비트겐슈타인은 의미를 개인 내부의 사적 경험에 근거시키려는 시도를 비판하였으며, 원효는 인식 주체와 인식 대

---

24) 원효 『금강삼매경론』권상, 『한국불교전서』 1, 620c; T34, no. 1730, 965c11-12 如是始得無生之心會本空寂無化之理, 故言無生之心在於無化。假說心境, 故寄言在然。然始離能取, 始覺義; 本離空心, 是本覺義。

고영섭, 『분황원효 불교사상사』 (서울: 씨이알, 2024), 78-108, 263-266. 원효는 궁극적 실상을 "심행처를 넘어 언어의 길을 초월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언어와 개념이 진리를 완전하게 재현할 수 없음을 강조한다. 따라서 언어는 실상을 고정 적으로 규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중생의 집착을 해체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능을 한다.

25) 擬似問題, pseudo-problem; 의사문제란 겉보기에는 철학적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언어의 오용이나 개념 혼동에서 생겨난 문제를 말한다

상을 독립된 실체로 이해하는 분별 구조를 해체하고자 하였다. 양자의 논의는 서로 다른 문제 영역에 속하지만, 고정된 실체와 궁극적 근거를 상정하는 사고방식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비교 가능성을 제공한다.

비트겐슈타인은 오직 자신만 이해할 수 있는 사적 언어가 가능하다는 생각을 비판한다. 규칙을 따르는 행위는 공적 기준을 필요로 하며, 그러한 기준이 없는 곳에서는 의미도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의미는 개인 내부에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공동체적 실천 속에서 형성된다.<sup>26)</sup>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효 역시 독립적 자아와 독립적 대상을 전제하는 인식 구조를 비판한다. “일체의 능취 분별을 떠남을 말한다.(謂離一切能取分別)” 또한 “다만 하나의 마음일 뿐이다.(只是一心)”라고 말함으로써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의 근원적 분리를 부정한다. 여기서 일심은 주체와 대상 너머에 있는 또 하나의 실체라기보다, 능취와 소취의 이원적 분별이 해체된 비이원적 지평을 가리킨다.

비트겐슈타인이 사적 자아에 근거한 의미 이론을 해체하였다면, 원효는 능취와 소취의 대립을 해체함으로써 분별의 근거 자체를 제거한다. 양자의 철학은 모두 독립된 실체를 상정하는 사고방식을 비판한다는 점에서 구조적 유사성을 가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Rupert Read는 비트겐슈타인과 선불교의 공통점을 “하나의 실천(one practice), 그러나 어떠한 교리도 아니다(no dogma)”라는 표현으로 요약한다.<sup>27)</sup> 그의 견해에 따르면 양자는 새로운 형이상학적 이론을 제시하기보다 언어와 개념에 대한 집착을 해소함으로써 우리를 일상의 삶으로 되돌려 보내는 치료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서로 만난다. 비록 원효의 사상이 선불교와 동일시될 수는 없지만, 언어를 궁극적 진리의 표상이 아닌 방편으로 이해하고 분별적 집착을 해소하려 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통찰은 원효의 언어관을 이해하는 데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양자의 논의는 동일하지 않다. 비트겐슈타인의 사적언어 비판은 의미가 개인 내부의 사적 경험에 의해 성립할 수 없음을 논증하고, 의미의 성립 조건을 공적 규칙과 언어게임 속에서 찾으려는 언어철학적 논의이다. 반면 원효의 능취·소취 해체는 의미의 사회적 성립 조건을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의 이원적 분별 자체를 해체하여 일심의 차원을 드러내려는 수행론적 논의이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이 ‘의미의 사적 근거’를 비판한다면, 원효는 주체와 대상이 독립적으로 실재한다는 분별의 근거 자체를 해체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럼에도 양자는 모두 독립적이고 고정된 자아 또는 실체를 전제하는 사고방식을 비판하며, 인간을 속박하는 개념적

---

26) Peter M. S. Hacker, *Wittgenstein: Meaning and Mind*, 2nd ed. (Oxford: Wiley-Blackwell, 1993), pp.185-243.

27) Rupert Read, “Wittgenstein and Zen Buddhism: One Practice, No Dogma,” in Mario D’Amato, Jay L. Garfield, and Tom J. F. Tillemans (eds.), *Pointing at the Moon: Buddhism, Logic, Analytic Philoso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13-24.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는 점에서 궤를 같이하는 중요한 철학적 시사점을 보여 준다.

더욱이 비트겐슈타인이 의미의 최종적 근거를 부정하고 언어게임과 생활양식 속에서 의미를 이해하려 하였듯이, 원효 역시 능취와 소취의 어느 한쪽에도 자성(自性)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양자의 논의는 고정된 근거와 실체에 대한 집착을 해체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철학적 공명(共鳴)을 보여준다.

#### 4.3 철학적 치료와 수행적 치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비트겐슈타인과 원효는 언어적 집착의 구조를 해체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성이 곧 양자의 궁극적 목적까지 동일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언어의 한계를 다루는 방식과 치료의 궁극적 지향점에서는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기본적으로 철학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작업이다. 그는 『철학적 탐구』에서 철학을 학설(Lehre)이 아니라 활동(Tätigkeit)으로 이해하였다. 철학의 역할은 새로운 형이상학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언어의 사용 방식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철학은 언어에 의해 우리의 지성이 매혹되는 것에 대한 투쟁이다.”(Philosophy is a battle against the bewitchment of our intelligence by means of language).<sup>28)</sup> 여기서 치료의 목적은 철학적 혼란으로부터 벗어나 일상적 언어 사용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 철학은 병을 치료하는 의사와 같으며, 치료가 끝나면 더 이상 철학적 설명은 필요하지 않다.

반면 원효에게 언어의 치료는 단순한 개념적 명료화를 넘어 수행과 해탈로 이어진다. 원효가 해체하고자 하는 것은 철학적 오류만이 아니라 윤회와 고통을 발생시키는 근본 무명이다. 『금강삼매경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무상과 무생마저도 하나의 편견이 된다.(無相無生 舍爲一邊)”<sup>29)</sup> 이는 공(空)에 대한 집착조차 제거해야 함을 의미한다. 원효에게 언어의 치료는 단순한 인식론적 교정이 아니라 존재방식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언어적 집착이 제거될 때 수행자는 일심의 경지에 도달하며, 그것은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깨달음의 체험이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의 치료가 주로 철학적 혼란의 해소와 일상 언어로의 복귀를 지향한다면, 원효의 치료는 궁극적으로 해탈과 구제라는 종교적 차원으로 확장된다.

28)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철학적 탐구』, 이영철 옮김 (서울: 책세상, 2020), §109.

29) 원효, 「금강삼매경론」 권하, 『한국불교전서』 1, 644b. T34, no. 1730, p. 1003b; 『금강삼매경론』은 “無相無生 舍爲一邊”(무상과 무생을 합하여 하나의 편견(邊見)으로 삼는다)이라고 하여, 부정적 개념에 대한 집착 역시 극복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4.4 언어를 통해 언어를 넘어섬

비록 비트겐슈타인과 원효의 치료가 서로 다른 목적을 지향한다 하더라도, 양자는 언어를 초월하는 길이 언어의 폐기가 아니라 언어에 대한 집착의 해체에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통찰을 보여준다. 비트겐슈타인과 원효는 모두 언어를 넘어서고자 하지만 언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논고』에서 사다리의 비유를 사용한다. “나를 이해한 사람은 마침내 그것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인식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들을 통해 그것들을 넘어서기 때문이다.”이 구절에서 사다리는 언어적 명제들이 궁극적 진리를 소유하게 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것들의 한계를 자각하게 하는 매개임을 보여준다.<sup>30)</sup>

원효 역시 동일한 구조를 보여준다. “무생의 마음을 말하는 것은 무화에 있으며, 다만 마음과 경계를 가설적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언어를 빌려 말할 뿐이다.(言無生之心在於無化 假說心境故 寄言在然)” 언어는 궁극적 실상을 담을 수 없지만, 실상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된다.<sup>31)</sup>

따라서 비트겐슈타인과 원효는 모두 언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언어의 절대화를 경계한다. 비트겐슈타인에게 언어는 철학적 혼란을 드러내고 해소하는 치료의 장이며, 원효에게 언어는 분별과 집착을 해체하여 깨달음으로 이끄는 방편이다. 두 사상은 서로 다른 전통에 속하지만, 언어를 통해 언어의 한계를 자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비교철학적 의의를 지닌다.

### 5. 맺음말

본 논문은 비트겐슈타인의 언어철학과 원효의 『금강삼매경론』에 나타난 언어관을 비교함으로써, 언어의 한계와 그것의 치료적 기능이라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비트겐슈타인은 서구 분석철학의 전통 속에서, 원효는 동아시아 대승불교의 전통 속에서 이해되어 왔으며, 양자는 서로 다른 사상적 지평에 속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양자가 모두 언어를 절대적 진리의 매개로 보지 않았으며, 오히려 언어에 대한 집착이 인간의 혼란과 고통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전기 비트겐슈타인은 『논리철학논고』에서 언어의 논리적 한계를 설정하고,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후기 비트겐슈타인은 이러한 관점

30) 루트비히 비트겐슈타인, 『논리철학논고』, 이영철 옮김 (서울: 책세상, 2020), §6.54.

31) 원효, 「금강삼매경론」 권상, 『한국불교전서』 1, 604a. T34, no. 1730, 968c.

遠離所取差別之相，解脫能取分別之執，遍三世際無所不等，等虛空界無所不遍，不墮有無一異等邊，超心行處，過言語道

을 더욱 발전시켜 언어게임과 생활양식의 개념을 통해 의미가 사용 속에서 형성된다고 설명하였다. 특히 사적언어 논증과 규칙 따르기 논의를 통해 언어의 의미가 개인 내부의 실체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실천 속에서 성립함을 보여주었다. 이 과정에서 철학은 새로운 이론을 제시하는 작업이 아니라 언어의 오용에서 비롯된 혼란을 해소하는 치료적 활동으로 이해되었다.

원효 역시 『금강삼매경론』에서 언어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언어에 대한 집착을 근본적인 문제로 파악하였다. 원효는 “超心行處 過言語道”라고 하여 궁극적 실상이 언어와 사유를 초월한다고 설명하였으며, “離所執差別相 亦離能執分別”이라고 하여 대상에 대한 집착뿐 아니라 분별하는 주체에 대한 집착까지도 해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 비판은 언어의 폐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원효에게 언어는 중생을 교화하기 위한 방편이며, 언어를 통해 오히려 언어적 집착을 제거하는 치료적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화쟁사상은 상반된 교설들에 대한 집착을 해체하고 보다 넓은 이해로 이끄는 언어적·수행적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본 논문은 두 사상가 사이에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양자는 모두 언어의 절대화를 경계한다. 언어는 진리를 가리키는 표지일 뿐 진리 자체가 아니다. 둘째, 양자는 모두 인간의 문제를 언어와 개념에 대한 집착에서 찾는다. 비트겐슈타인에게 그것은 철학적 혼란이며, 원효에게 그것은 무명과 분별이다. 셋째, 양자는 모두 언어를 통해 언어의 한계를 드러내는 역설적 방법을 사용한다. 언어는 궁극적 진리를 담아낼 수 없지만, 바로 그 한계를 자각하게 함으로써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다만 비트겐슈타인의 치료가 철학 내부의 문제를 다루는 개념적·방법론적 작업이라면, 원효의 치료는 존재론적 전환과 해탈을 지향하는 수행론적 실천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공통성에도 불구하고, 양자가 지향하는 치료의 목적과 성격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비트겐슈타인의 철학은 철학적 문제의 해소와 개념적 명료화를 목적으로 한다. 그의 치료는 철학적 질병의 치유이며, 언어의 실제 사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초점이 있다. 반면 원효의 언어관은 수행론적·구제론적 성격을 지닌다. 원효가 해체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개념적 혼란이 아니라 윤회의 근원인 무명이며, 그 궁극적 목적은 해탈과 깨달음에 있다. 따라서 비트겐슈타인의 치료가 철학적 혼란의 해소와 개념적 명료화를 지향한다면, 원효의 치료는 종교적 해탈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는 모두 언어를 넘어서는 길이 언어의 부정이 아니라 언어에 대한 집착의 해체에 있음을 보여준다. 비트겐슈타인이 철학을 언어에 의해 발생한 혼란을 치유하는 활동으로 이해하였다면, 원효는 수행과 교설을 분별과 집착을 제거하는 방편으로 이해하였다. 양자 모두 새로운 형이상학적 체계를 구축하기보다 인간을 구속하는 잘못된 집착을 제거함으로써 자유에 이르게 하려는 치료적 성격을 공유한다.

특히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사적언어 비판은 원효의 능취·소취 해체와 흥미로운 비교 가능성을 제공한다. 나아가 후기 비트겐슈타인의 무근거성 개념과 불교의 무자성 사상 사이의 철학적 연관성은 향후 비교철학적 연구를 통해 보다 심도 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물론 양자의 사상적 배경과 궁극적 지향은 다르지만, 언어를 절대화하지 않고 언어의 한계를 자각함으로써 보다 넓은 자유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접점을 형성한다.

본 연구는 서구 분석철학과 동아시아 불교사상을 단순히 병렬적으로 비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언어의 한계와 집착의 해체라는 공통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양자의 사유 구조를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를 통해 언어를 진리의 재현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집착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비교철학적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비트겐슈타인과 원효는 서로 다른 언어와 전통 속에 서 있었지만, 언어를 통해 언어의 한계를 드러내고 언어에 대한 집착을 해체함으로써 보다 넓은 자유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만난다. 이들의 사상은 언어가 진리를 소유하는 도구가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새로운 이해와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방편임을 보여준다.

## 참고문헌

### I. 원전 및 번역본

元曉. 『金剛三昧經論』. T34, no. 1730.

『금강삼매경론』. 『한국불교전서』 제1책.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Wittgenstein, Ludwig.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Translated by C. K. Ogden.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22.

Philosophical Investigations. 4th ed. Translated by G. E. M. Anscombe, P. M. S. Hacker, and Joachim Schulte. Oxford: Wiley-Blackwell, 2009.

비트겐슈타인, 루트비히. 『논리철학논고』. 이영철 옮김. 서울: 책세상, 2020.

『철학적 탐구』. 이영철 옮김. 서울: 책세상, 2020.

## II. 국내문헌

- 고영섭. 『분황 원효의 생애와 사상』. 서울: 조계종출판사, 2016.
- 『분황원효 불교사상사』. 서울: 씨아이알, 2024.
- 「분황 원효 『금강삼매경론』의 주요 내용과 특징」. 『불교철학』 7 (2020): 119-185.
- 남동신. 『원효의 발견』. 서울: 휴머니스트, 2022.
- 박태원. 「원효의 화쟁사상 연구」. 『한국불교학』 69 (2014): 383-404.

## III. 국외문헌

- Buswell, Robert E., Jr. Cultivating Original Enlightenment: Wonhyo's Exposition of the Vajrasamādhī-Sūtr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9.
- Conant, James. "Elucidation and Nonsense in Frege and Early Wittgenstein." In *The New Wittgenstein*, edited by Alice Crary and Rupert Read, 174-217. London: Routledge, 2000.
- Diamond, Cora. "Throwing Away the Ladder: How to Read the Tractatus." In *The Realistic Spirit: Wittgenstein, Philosophy, and the Mind*, 179-204. Cambridge, MA: MIT Press, 1991.
- Finch, Henry LeRoy. Wittgenstein: The Later Philosophy. Atlantic Highlands, NJ: Humanities Press, 1977.
- Hacker, Peter M. S. Insight and Illusion: Themes in the Philosophy of Wittgenstein. Rev. e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6.
- Wittgenstein: Meaning and Mind. 2nd ed. Oxford: Wiley-Blackwell, 1993.
- Rupert Read. "Wittgenstein and Zen Buddhism: One Practice, No Dogma," in Mario D'Amato, Jay L. Garfield, and Tom J. F. Tillemans (eds.), *Pointing at the Moon: Buddhism, Logic, Analytic Philoso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9)